

# 전남도 '공약 이행 평가' 최우수

### 전국 17개 시·도지사, 교육감 평가...투명·갓춤·민주성 SA등급 광주시, 민주·투명성 최고등급...5개 자치구·광주교육청 SA등급

전남도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공약 평가 결과,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매니페스토본부)는 17일 민선 8기 전국 17개 시·도지사 및 교육감을 대상으로 공약 평가를 실시한 결과, 전남도가 서울시, 경기·충남·경북·경남도와 함께 총점 90점을 넘어 최우수 등급(SA)을 받았다고 밝혔다.

매니페스토본부는 갓춤성(60점)·민주성(25점)·투명성(15점)·공약이행도(Pass or Fail) 등으로 평가 항목을 분류한 뒤 여기에서 35개의 세부지표로 나눠 평가했다.

이번 평가는 시도지사 및 교육감의 선거공약의 실효성과 실천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철학과 비전, 연차별 이행로드맵과 재정계획 등의 체

제적이고 구체적인 실행매뉴얼을 작성, 공개하는 것을 평가하면서 보완할 점도 진단하기 위해 진행됐다.

전남도의 경우 갓춤성, 투명성, 민주성 3개 분야에서 모두 최고등급(SA)을 받았다.

갓춤성은 ▲지역 비전 및 소명 ▲핵심 공약과 우선 순위 ▲연차별 투자규모 ▲공약가계부 ▲분야별 예산 배부 ▲정책 목표 설정 등을 제시했는지 여부 등을 세부 지표로 분류해 분석했다. 민주성은 ▲실천계획서 확정 과정에서의 주민 참여 ▲매니페스토 실천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여부 등을 지표로 평가했고 투명성은 정보접근성과 명확성 등의 지표가 평가에 담겼다.

광주시는 민주성과 투명성 등 2개 분야에서 최고등급을 받았고 광주교육청도 총점이 90점을 넘

어 SA등급을 받았다. 광주지역 5개 자치구는 모두 SA등급을 받았다.

전남도는 ▲국립 의대 설립 ▲전남 농업 서포터즈 100만명 육성 ▲첨단반도체 특화산단 유치 ▲전남관광 1억명, 해외관광 300만명 시대 개막 ▲남해안 글로벌 해양관광벨트 구축 ▲서울·전남·제주 간 JTX 건설 공약 등 100개를 제시했고 이 중 79%(79개)를 임기내 종료하겠다고 제시했다. 예산이 필요한 사업은 93개로 국책사업은 51개로 나타났다. 전남도의 국책사업은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광주는 173개의 총 공약 중 154개를 임기 내 완료되는 공약으로 분류, 서울 다음으로 많았고 신규 공약수(112개)도 경기도(147개), 인천(143개) 다음으로 많았다.

한편, 매니페스토본부가 유사한 방식으로 실시한 전국 시·군·구청장에 대한 공약평가에서는 여수·광양, 장흥·해남·영암, 광주 5개 자치구가 90점을 넘어 최고 등급을 받았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 광주·전남 '광주 군 공항 이전' 논의 활발

### 김영록 지사, 함평군수 면담...강기정 시장 "통 큰 결단 필요"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다음 절차인 예비 이전 후보지를 찾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 되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17일 기자단과의 차담회에서 광주 군 공항 이전과 관련해 "정치 지도자, 지역 리더들의 통 큰 결단과 로드맵에 대한 합의가 중요한 시기"라면서 김영록 전남지사를 조기에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거듭 밝혔다.

강 시장은 "유불리를 따지거나 작은 계산을 하게 되면 시간이 훌쩍 가버릴 것 같다"면서 "이전 대상지, 종전 부지 개발 등에 기대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 여론도 있는 만큼 이럴 때는 합리적인, 통 큰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다만 이전 후보지로 거론되는 함평, 무안 자치단체장과의 만남을 묻는 질문에는 각종 논란을 의식한 듯 "지금은 지자체장 판단과 의지에 맡겨야 할 사항이어서 만나면 오히려 소지가 생길 수 있다. 아직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강 시장은 광주 민간공항과 군 공항을 패키지로 해 함평으로 옮기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도 "아직 검토해본 적 없다"고 일축했다.

강 시장은 이어 "이제는 군 공항 이전 특별법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 접어들었다"며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과 연동해 시행령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전 지역 인센티브를 어떻게, 필 줄지 전남과 협의하고 광주시의 생각도 제시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영록 전남지사도 이날 광주 군(軍) 공항 이전과 관련, 이상익 함평군수, 김산 무안군수와 잇따라 면담 일정을 잡고 지역 발전을 위한 해법 모색에 나섰다.

김 지사는 이날 도청에서 이 군수와 만나 함평군의 광주 군공항 유치에 나선 배경과 함평군, 전남

도 입장 등에 관한 얘기를 나눴다.

이날 면담은 함평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 광주 편입을 전제로 한 군 공항 이전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민간공항과 군 공항의 함평군 동시 이전' 주장도 제기되자 김 지사가 이 군수에게 직접 연락해 성사됐다.

김 지사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 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의 경우 이전지역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담기지 않아 충분한 시간을 갖고 지역 발전과 주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종합적인 지원대책이 먼저 제시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군수는 그동안 함평군의 군 공항 유치 추진상황을 설명하고 앞으로 군민의 뜻이 제대로 모아지도록 중립적인 위치에서 명분과 실리를 냉정하게 검토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전남도는 또 함평군과 함평 세계나비·곤충엑스포를 국제행사로 공동 개최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김 지사는 김산 무안군수와도 조만간 만남을 갖고 군 공항 이전과 관련한 무안군민들의 의견을 듣고 무안공항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김 지사는 애초 17일 저녁 김 군수와 만나기로 예정돼 있었지만 김 군수의 연기 요청으로 다음으로 미뤘다. 전남도 안팎에서는 김 군수가 지사와의 만남 일정이 공개되면서 주변의 관심이 집중되는 데 따른 부담을 들어 연기 요청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김 군수가 오는 19일부터 21일 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무안군 일대 도자산업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일본을 방문기로 한 만큼 김 지사와의 만남은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김영록 지사 '곡성도민과 대화' 김영록 전남지사가 17일 오후 '도민과 더 가까이, 행복한 만남'을 위해 곡성반디비체육센터에서 곡성군민과 함께 하는 2023 도민과의 대화에서 곡성군 농특산물을 살펴보고 있다. <전남도제공>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차단 비상 체제

### 전남도, 오리농장 일제검사·소독주간 운영·가금농장 방역 강화

전남도가 영암과 장흥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지난 14일 발생함에 따라 확산 차단을 위해 비상 대응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해당 농장은 도축 출하를 위한 전남도동물위생시험소 정밀검사 과정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즉시 방역본부 초동방역팀을 현장에 투입해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도 현장지원관을 급파해 현장 조사를 통해 발생 원인을 분석했다.

발생 농장 반경 10km 내를 방역지역으로 정해 이동 통제와 집중 소독을 하고, 방역지역 내 전체 가금농장 50농가는 정밀검사를 했다. 발생 농장 사육 가금 2만9000마리를 신속하게 살처분했으며, 도내 전체 오리농장 및 관련 시설에 대해 16일 오전 11시까지 36시간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고 집중 소독을 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차단을 위해 비상 대응에 힘쓰고 있다. 감염축을 조기에 색

출해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21일까지 도내 전체 오리농장 207농가에 대해 일제 정밀검사를 추진한다.

도내 전 지역에 대해 축산차량 출입통제와 거점 소독시설 소독 의무 등 행정명령 8건과 가금농장 방역수칙 공고 7건을 시행했다. 방역지역 육용오리에 대해 계열사를 통해 3-5일 조기 출하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산란계 밀집단지에 대해 전담 소독차량을 배치해 매일 소독하고 통제소를 운영해 통제와 소독 강화, 계란 차량이 밀집단지 내로 진입하지 않도록 단지 입구에 알 환적장을 운영하는 등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전남지역 모든 가금농장 및 주변 도로에 대해 4월 말까지 집중 소독 주간을 운영하고, 공동방제단 99개단을 동원해 매일 오리농장을 소독하고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에서 차량별 소독상황을 매일 모니터링 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전남 수출 현장 해결사 '통상닥터'

### 동부·중부·서부권역 배치 기업 방문...통번역·예약서 검토 등 지원

전남도가 중소기업의 국제무역 강화 및 수출 촉진을 위해 무역 실무 능력이 부족한 기업을 수시로 방문해 수출 현장 애로사항 해결을 지원하는 통상닥터를 운영한다.

통상닥터는 무역 경험이 풍부한 무역 현장 자문 위원이다. 전남도는 동부권과 중부권, 서부권, 3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 통상닥터 1명을 배치해 근거리에서 기업을 직접 방문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기초 수출 상담, 통번역, 구매자 서신 검토 및 작

성, 수출계약서 검토 및 작성 등 무역 실무와 마케팅 전략 수립 등 무역 관련 종합 상담, 시장 개척 및 수출 증대를 위한 신규 구매자 발굴도 지원하고 있다.

올해 1분기 통상닥터 상담을 받은 기업은 총 65 곳이다. 첫 상담 기업은 16곳, 2년 이상 상담 기업은 49곳이다. 그중 27곳이 미국, 캐나다 등으로 1408만 달러 수출 성과를 달성했으며 385만 달러 추가 수출계약을 했다.

통상닥터는 전남에 자리잡은 중소기업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으로 연중 접수한다. 신규 수출 상담을 바라는 중소기업은 전남도수출정보망(www.jexpo.or.kr)의 통상닥터 신청란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현근 전남도 국제협력관은 "각 기업의 수출 애로사항과 역량은 다를 수 있다"며 "통상닥터가 수출현장을 직접 방문해 기업 상황을 파악하고 빠르게 대응하게끔 맞춤형 무료 상담을 제공토록 함으로써 기업의 수출 역량을 높여준다"고 말했다. 지난해 95개 기업이 732회 통상닥터 상담을 이용했으며 그중 44개 기업은 2152만 달러 수출과 2068만 달러 수출계약을 이뤘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절찬 판매중

문이당 | 15,000원

## 영광의 사나이! 이기원이 쓴 이방인

대한민국엔 0.1%의 이방인들이 살고 있다.  
금수저로 불리는 불량 재벌과 무소불위의 권력을 쥔 국회의원 등의 고위 공직자들이다.

**서민들의 삶의 애환을 보듬고 재벌과 권력자들을 질타한 작품!!**

서점 판매 | 영풍문고 총장서림 초원문고

인터넷 판매 | 교보문고 영풍문고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배송료 무료)